

“미술관 공연 등 색다른 연극 선보입니다”

2018 주목! 이 사람

〈3〉연극연출가 성화숙

‘전대 극회’서 배우로 첫 무대 서

200회 넘는 인형극하며 연기 배워

대학로서 극단 ‘우아’ 창단 연출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 활동

사회적 메시지·인간의 번뇌 등

나만의 색깔 담은 작품 구상”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배우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성 씨는 대학로에서 조연출로 5년간 활동했고 2014년부터 극단 ‘우아’를 창단, 본격적으로 연출가의 길을 걸었다. 2011년 프로젝트극단 우아 연극 ‘유미미아술이’를 시작으로 남독 연극 ‘운수 좋은 날’(2014), 서울 프린지 참가작 ‘술도깨비전’(2014), PADAF 신진 예술 참가작 ‘Sweet Home Sweet’(2015),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At the moment- The room’(2015) 등을 연출하며 내공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테이레시아스의 눈’, ‘부탁해 엄마’, ‘6호실’, ‘아름답고 스산한 그의 집필일기’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다.

“연출가로 일할 때보다 배우로서 무대에 설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맡은 역할에 빠져들어 연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죠. 그 역할에 몰입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한다는 점이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출가는 배우, 감독, 스태프들과 극에 대해 조율해야 하는 일이라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연출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배우가 받아들이고 표현해내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연출해 내지 못했을 겁니다. 단원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는 힘을 줬요. 그 힘을 가지고 무대와 작품에 대한 책임감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현재 kbc 광주방송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남도잡음’의 대본을 쓰고 있기도 한 그녀는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까지 선보였던 작품들이 대중을 고려한 상업적인 작품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메시지, 인간의 번뇌, 고민 등을 담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구상중이다.

“제 색깔을 담아 스토리와 움직임이 적절히 섞인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대사 뿐 아니라 움직임, 배우들의 호흡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극장이 아닌 다른 공간, 예를 들면 미술관 같은 곳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과 배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등을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서울보다는 광주에서 연출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광주를 지켜온 선배 연극인들의 공연과는 다른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요. 조금더 유연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함께 할 사람들도 찾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무용으로 빛어낸 교향곡 ‘합창’의 감동

11일 문화전당서 ‘댄싱 베토벤’ 시사회·시네토크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무용으로 재현한다.

영화 ‘댄싱 베토벤’(사진) 시사회와 씨네토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린다.

‘댄싱 베토벤’은 현대 무용의 신화로 불리는 모리스 베자르의 강렬한 안무와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이끄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합창’ 교향곡이 빛어내는 감동을 담은 영화다.

아란지 아기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댄싱 베토벤’은 스위스 베자르 발레로

잔, 도쿄 발레단이 모리스 베나르의 안무에 맞춰 무용 작품을 선보이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오는 2월 정식 개봉한다.

영화 상영 후 오후 4시부터는 씨네토크가 펼쳐진다. 서울대와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고 KBS 팟캐스트 ‘김주영의 그때 그사람’을 진행중인 피아니스트 김주영씨와 ‘열 세상 수아’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희정씨가 진행한다. 김씨는 현재 조선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시나리오를 강의하고 있다. 무료.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아트홀 ‘2018 문화 페스티벌’ 공연 단체 모집

광주아트홀(사진)이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2018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에 참여할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실용음악, 아가펠라, 무용, 토크, 제즈, 마술 등 다양하다.

지난 2012년 11월 문을 연 광주 아트홀은 150석 규모의 쾌적한 좌석과 최신식 LED 조명 시설, 분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풀 사이즈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구비돼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0여 개 단체를 선

정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선정된 단체들에게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4차례까지 공연 기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명, 분장실 등 부대 시설 사용비도 전액 지원하며 단 티켓 판매 금액은 5대 5로 배분한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공연계획서와 함께 단체-고유번호 등을 제출한 후 방문(오전 9시~오후 5시) 및 팩스 접수하면 된다.

광주아트홀은 지난해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공연 보는 날’ 공모를 진행, 15개 단체가 총 42회 공연을 개최했다. 문의 gwangjuarthall.com, 062-227-7440. /전문기자 ej6621@

이승희 작가 개인전 31일까지 휴랑갤러리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누드 크로키 작업은 자유로우면서도 때론 강렬한 인상을 준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승희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크로키 그룹 ‘토만사’에서 활동하며 오랫동안 작업해온 크로키 작업을 기초 삼아 모델들의 다양한 포즈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꽃과 전구를 여행하며

화폭에 담은 풍경 작품,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누드 크로키 작품 등 모두 25점을 전시한다.

이 작가는 지금까지 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안산국제드로잉 아트페어, 광주화우회 한일 교류전, 프랑스 파리 스페셜 K아트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 작가는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전남도전 등에서 입상했으며 한국미협, 토만사 회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웰컴투전라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폴리 다시보기-프로로그
문화자산만들기
광주폴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충호의 꿈의 여행③
'축가사'가 나을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동네 책방에 빠졌다-작방별곡②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에요”

취재의 전서
유럽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문화가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 부릅뜬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엽 문학관

해양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게마을, 울진 평해읍 거일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 마을

트렌드
[파워가게]
'위로'한 컵,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웹툰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인방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니 숨난 땅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땅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